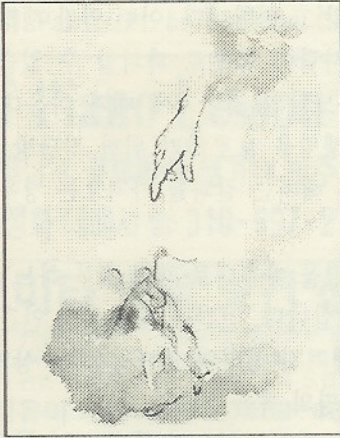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주님 승천 대축일(성모성월)
제29권 26호(나해) 2009 · 5 · 24

[묵상]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

“보라,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그는 높이 올라 승고해지고 더없이 존귀해지리라.
그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질겁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수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하고
임금들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리니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보고
들어 보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이사 52,13-15)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 귀천(歸天) • 천상병 시인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아침 미사 (레지오) 저녁 미사	오전 9:00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M. E. Sharing (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레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떼제기도모임 (2째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 미사	(연)한숙이 모니카, 김소천 마리아, 김명순, 엄은섭 도로테오
	(생)최태훈 아오스딩, 신우용 안토니오, 정케빈 요셉
주 일 낮 미사	(연)고준희 제임스, 이현호 요한, 이금순 마리아, 황옥분, 윤준의 스킨라스티카, 이영자 마리아, 이상현 베드로, 변세연 대진 안드레아, 임계순, 장현숙 발바라, 김봉선 마리아, 낙태아들의 영혼
	(생)이윤조 글라라, 김기정 루치아, 민옥선 마리아, 이재숙 테레사, 이재용 안드레아와 혜선 안젤라 가정, 전규인 스테파노, 김인태 레이몬드, 박지영 안젤라와 리처드, 브라이언 가정, 최현찬 안드레아와 도로테아 가정, 장영우 엘리사벳, 최경애 프란치스카 가정, 홍석인 체칠리아, 백삼위 마라톤 동호회 회원들, 박상대 마르코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Acts) 1,1-11

화답송 ◎환호소리 높은 중에 하느님 오르시도다. 하느님
오르시도다. <전례성가 73, 예수 승천 대축일>
◎만백성 너희들은 손뼉을 쳐라. 기쁜 소리 드높이
주님 부르라. 주님은 지존하고 지엄하시다.
온누리의 크옵신 임금이시다.◎
◎환호소리 높은 중에 하느님이 오르시도다.
나팔소리 나는 중에 주님 오르시도다. 노래하라,
노래하라, 하느님께 노래하라.
고를 타며 우리 왕께 노래를 하라.◎
◎하느님은 온 땅의 임금이시니, 멋지게 고를 타며
노래 부르라. 하느님이 못나라에 왕 하시도다.
거룩하신 여좌에 앉으시도다.◎

제 2독서 에페소서(Ephesians) 1,17-23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복음 마르코(Mark) 16,15-20
영성체송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72	165
봉헌	269	200,264
성체	하느님 그리고 나	305,295
파견	172	172

3)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시다.

☞“하느님만이 그 시작부터 끝까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
문에, 어느 누구도 어떤 경우에도 무죄한 인간을 직접 파괴할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가톨릭 교리서 2258항. 생명의 선물 5항>

십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어떤 인간 생명도 하
느님께서 주인이시기에 사람이 함부로 파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 생명마저도 하느님의 것이기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간혹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로서
남의 생명을 어쩔 수 없이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는 인
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죄한 남의 생명을 마음대로 해칠 경우 하느님께서
는 엄중히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인간은“태초부터 인간의 마
음속에, 그의 양심 속에 새겨진 생명의 불가침성”을 상기하도
록 요청받고 있습니다.(생명의 복음 40항)

그러나 오늘날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과 말기 환자들을 비롯
한 수많은 연약한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
에 대한 도전은 하느님께 대한 직접적인 도전입니다.

4) 인간 생명에 대한 새로운 위협들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해진 새로운 전망과 더불어
어 인간 존엄성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위협들이 생겨나고 있
습니다. 그와 동시에 새로운 문화 사조가 생겨나 자리를 굳히
고 있습니다. ... 장차 태어날 단계에서든 아니면 인생의 마지
막 단계에서든 수많은 인간 생명이 파괴되는 현실은 극도로
심각하고 불안합니다.”<생명의 복음 4항>

1973년 미국 대법원에서 낙태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등 낙태를 사생활 존중의 권리, 선택권 또는 자
기결정권으로서 법적으로 허용하는 사조가 점점 만연해 졌습
니다. 1980년대 초에는 프랑스 ‘RU’ 제약회사에서 먹는 낙태
약 까지 개발했습니다.

또한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라는 목소리도 높아졌고 생
명과과학의 발달로 유전자의 조작, 동물 복제, 체외수정 등이 가
능해지면서 생명이 실험실의 재료처럼 다루어지고 있었습니
다. 1991년 추기경단은 생명의 위협을 주제로 회의를 열고 생
명의 가치를 재천명하기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교황 요한 바
오로 2세는 1995년 5월 <생명의 복음>이라는 회칙을 발표하
였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을 사랑하고 이른 새벽부터
지혜를 찾는 이들은 기쁨에 넘치리라.”(집회서 4,12)

예수님과 함께 추억 만들기!

휴일에 흘러간 추억을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와 살던 동네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찾았는데 살던 집과 동네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한두 군데 변하지 않은 곳이 있어 예전 기억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곤 예전에 다니던 성당 근처를 돌아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재개발이란 명목으로 폐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냥 그곳을 두고 오기가 너무 아쉽고 마지막이란 생각에 시장 골목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추억을 그릴 수 있는 곳들이 이제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만 그런대로 기억할 수 있을 뿐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시 올수 없는 길을 떠나는 느낌과도 같았습니다. 집으로 오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추억을 만들자!’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 입니다. 사도행전은 주님의 승천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래야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으며, 주님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영광스런 모습을 지켜봤던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보내며 어떤 마음이였을까요? 그들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 외롭고 두려웠기에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흰 옷을 입은 사람의 등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제자들의 행적을 알려 줍니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승천 후에 주님을 추억하고 기억하기 위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떠나보냈지만, 주님께서서는 언제나 그들 마음에 살아계셨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써 아버지의 일을 하신 주님을 닮아갔으며 주님과 함께 새로운 추억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젠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추억 만들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하느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미사를 통해서 그분을 자주 만나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새로운 계명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실것 입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우리 모두 이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신앙인의 추억을 만들어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합시다.

◆ 장광재 요아킴 신부 | 상설고해사목부

이번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문재원 클로틸다	신덕레 데레사	최성자 카타리나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박진수 스테파노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박혜경 레나타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1/3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정미영 미카엘라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김교복 레오	이재용 안드레아
제2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김금자 데레사	이혜선 안젤라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1반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5 월
성모성월

◆ 성모의 밤 : 29일(금) 오후 7시30분 성전

- 각 단체 및 개인의 꽃 봉헌과 초 봉헌이 있습니다. 문의 : 전례부장 김명숙 루실라
- 준비물 : 묵주, 개인초, 가급적 한복착용

◆ 백삼위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에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

백삼위 공동체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 개최한 금년도 체육대회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주관부서인 대건회를 비롯하여 양업회, 배론청년회 등 수고하신 모든 신자분들과 도네이션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LA 마라톤에 본당 신자 5명 출전

- 메모리얼 데이(25일:월)에 개최되는 제24회 LA 마라톤 대회에 본당 마라톤 동호회 회원 5명이 출전합니다. 백삼위 건각들의 건투를 빕니다.
- 선수 명단 : 윤희동 안토니오(사목회 부회장), 최재은 베드로(종교교육분과위원장), 최현찬 안드레아(조경분과위원) & 태순 도로테아 부부, 정연영 크리스티나(글로리아 성가대)

◆ 양업회 춘계 야유회

- 일시 : 5월25일(월) 오전 10시~오후 4시
- 장소 : 웨스턴 바닷가(약도 사무실에 비치)
- 회비 : 가족당 \$20(준비물 : 따뜻한 옷)
- 연락처 : 양업회 회장 김찬구 요한 ☎(310)701-6343

◆ Medicare 및 Madical 의료 정보 세미나

오는 7월1일부터 혜택이 줄어드는 정부 당국의 메디케어 및 메디칼 프로그램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정보도 알려드립니다.

- 일정 : 5월31일(주일) 낮미사 후 오후 1시 30분, 강당
 - 강사 : 이정훈 안셀모(사회복지분과 위원)
- ☎(310)329-5014

◆ 최영신 프란치스코 형제의 종신부제 서품을 축하합니다.

- 서품식 : 6월13일(토) 오전 9시

● 주례 : 로저 마호니 추기경

● 장소 : LA 대교구 주교좌 성당(555 W. Temple St. LA)

☞ 초대권과 주차료가 필요합니다. 신청 : 성당 사무실 ☎(310)326-4350, 최숙 클라라 ☎(310)210-8188 E-mail : clara@uri-us.com

● 수품기념 감사미사 : 6월14일(주일) 오전 11시, 본당

◆ 백삼위 본당 청소년 보호위원회(Safeguard the Children Parish Committee) 구성

- Chairperson : 송중두 요한
- Member : 신부님, 수녀님, 총회장, 부회장 1명, 총무부장, 청소년분과위원장, 주일학교 교장, 한국학교 교장, 자모회장, 청년회장, 대학부 회장, 주일학교 학생대표, 사무장

◆ 제4차 세계 울뜨레아 대회

- 일정 : 8월1일(토) 낮 12시~오후 9시
- 장소 : 애나하임 컨벤션센터
- 티켓예매 : \$25(식사 제공), 한인공동체에 배당된 티켓이 한정되어있습니다. * 접수 : 정병옥 율리아 ☎404-1607

◆ 빈첸시오회 옷가지 수집

- 빈첸시오회가 집에서 입지않는 의류를 수집합니다. 모아진 의류는 LA 대교구 빈첸시오회로 보내 남미의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줍니다. 많이 동참하여 주십시오.
- 문의 : 박홍룡 요셉 ☎(310)283-5879

◆ 상장예식서(한글-영어 합본) 판매중

가톨릭 연도와 장례예절을 책 한권으로 어려움 없이 치를 수 있는 한-영 상장예식서 'Catholic Funeral Rites(English-Korean)'가 북미주사제협의회와 평화신문 미주지사에 의해 발간되었습니다. 이 예식서는 한국어에 서툰 영어권 2세 신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 가정에 한권씩 비치하여 신앙안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합시다.

● 사무실에서 판매중입니다. 권당 \$15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5월24일(주일) : 메모리얼데이 연휴, 점심나누기 없음
- 5월31일(주일) : 토런스 서 3반(비빔밥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권태만	김광일	김성일	김원호	김재연	김정순
김정희	김진숙	나경흠	민경근	박진수	배기엽
배재일	신경훈	원건희	유영균	유태현	육재민
윤선희	이경용	이경태	이재정	익명	정인식
조준제	지경수	채양석	최상만	최수복	최이원
최태훈	최현찬	하정화	황지영		
합계 : \$3,570					

미사헌금 : \$2,369.50

권태만	김광일	김성일	김원호	김재연	김정희
나경흠	민경근	박진수	배기엽	신경훈	원건희
유영균	육재민	이경용	이경태	이일길	이재정
정인식	조준제	지경수	채양석	최상만	최수복
최이원	최현찬	황지영			
합계 : \$2,245					

감사헌금 : 최상만 김광일

주일학교 소식

◆ 주일학교/한국학교 휴강 안내

- 오늘 주일(24일) 메모리얼데이 연휴로 수업 없습니다.

◆ 첫영성체

- 학생고해성사, 리허설, 학부모 피정 : 6월6일(토)
오전 9시30분~오후 1시30분(점심제공)
- 첫영성체 예식 : 6월7일(주일) 오전 11시 미사 중
- 신청 : 주일학교 또는 사무실(세례증명서 첨부)

◆ 여름 성경학교 신청

- 일시 : 6월26일(금) 오후 3시~27일(토) 오후 5시
백삼위 본당에서 1박2일(Overnight)
- 대상 : 2학년~7학년
- 준비물 : 침낭, 세면도구, 여벌옷 * 참가비 : \$10
- 신청 : 주일학교 또는 사무실

◆ Youth Conference(고등부 신앙대회)

- 일시 : 7월24일(금) 낮 12시 출발~
7월26일(주일) 오후 3시 도착
- 장소 : Steubenvill, San Diego
- 대상 : 8학년~12학년
- 참가비 : \$150(5월31일까지), \$175(6월1일 이후)
- 신청 : 주일학교 또는 사무실

남가주 소식

◆ 성령강림 대축일 전야제

- 일시 : 5월30일(토) 오후 5시~10시, 남가주 전신자 대상
- 강사 : 배광하 치리아꼬 신부(춘천 겐사마니 피정의 집 원장)
- 장소 :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 내용 : 찬미/미사/특강/안수
- 문의 : 남가주 성령채신 봉사회 총무 ☎(213)435-7570

◆ 이나시오 영성 1일 피정

- 일시 : 5월30일(토) 오전 9시30분~오후 5시
- 주제 : 관상하는 삶, 성찰하는 삶
- 강사 : 황정연 신부(예수회), 김요한 Br.(예수회)
- 신청 : 전아그네스 ☎(213)507-1144

◆ 제22차 성령안의 생활 세미나

- 일시 : 6월4일(목)~6월7일(주일)
- 장소 : 예수고난회 피정센터 *강사 : 배광하 치리아꼬 신부
- 참가비 : \$270(1인1실 선착순 60명)
- 문의 : 각본당 성령기도회 회장

이번 주 단체 모임

5월 사목상임위원회 오후 1시

다음 주 단체 모임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차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장	권병연	리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남명자 데레사 328-0847	5/17(주일) 본당 채육대회
	2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5/17(주일) 본당 채육대회
	3	한길선레 스킨라스티카 218-7824	한길선레 스킨라스티카 782-1025 5/15(금) 오후 8시,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3-1237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5/17(주일) 본당 채육대회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5/17(주일) 본당 채육대회
	3	이호미 엘리사벳 543-4953	5/17(주일) 본당 채육대회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씨니 클라라 612-8840	1	엄영숙 마리아 373-5662	5/17(주일) 본당 채육대회
	2	박희자 마리아 791-3703	안혜진 세레나 325-6982 5/13(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강은진 켈마 214-2290	강은진 켈마 214-2290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800-3709	5/17(주일) 본당 채육대회
	3	대전희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전희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 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정정숙 올리아 365-4722	정정숙 올리아 365-4722 5/8(금) 오후 7시30분
	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박혜경 레나타 808-5005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장숙환 수산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송근섭 발렌티노 (213)268-8455 5/9(토)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자 544-4807	오석만 사무엘 5/8(금) 오후 7시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이문중 바오로 541-7860 5/9(토)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이귀란 아녜스 5/14(목) 오전 10시

◎ ‘종신부제’(終身副祭, permanent deacon)란 무엇인가? (下) ◎

현재 북미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출신 종신부제는 약 40명이며, Los Angeles 대교구 지역에는 12명이 있다. 종신부제는 서품을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만 35세 이상, 만 65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종신부제는 독신(獨身)일 필요는 없으나, 독신의 상태로 부제품을 받은 경우 서품 이후에는 결혼할 수 없다. 이미 결혼한 종신부제가 이혼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즉시 부제품에서 해지된다. 서품을 받은 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재혼할 수 없고, 그 때부터 독신생활을 해야 한다. 특이한 경우 하나를 소개하면, 1991년 미국 텍사스 샌 안토니오(San Antonio, Texas) 교구의 종신부제로 서품된 한국인 출신 김충진 필립 부제는 1999년에 배우자가 별세하자 교구 주교님의 권유로 신학교에 입학하였고, 2004년 74세의 나이에 사제서품을 받은 적이 있다.

종신부제 과정에는 ‘남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총 5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각 교구에 설치되어 있는 ‘부제학교’가 맡는다. 현재 LA 대교구의 부제학교는 ‘Diaconate Formation’으로 불린다. 이는 총 5년 동안 부제로서 교회에 봉사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직무자를 만들어 간다는 뜻이다. LA 대교구의 경우, 종신부제 과정은 총 5년으로 예비기간(Aspirancy Period) 1년과 본 과정(Candidacy Period) 4년으로 되어 있다. 본과 2년차 때에 독서직(Institution of Reader)을 받으며, 3년차 때에 시종직(Institution of Acolyte)을 받는다. 결혼한 사람의 경우 배우자도 함께 5년 동안 전체 과정을 준비하고 공부해야 한다. 또 매년 새로운 과정을 시작할 때마다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여성 배우자에게 일종의 ‘거부권’을 주는 이유는 기혼자로서 종신부제가 되려는 사람, 또는 이미 종신부제가 된 사람은 교회 봉사직뿐 아니라 가정생활에도 충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부제로서의 직무를 수여하는 성품성사도 중요하지만 배우자와의 사랑과 일치와 성사인 혼인성사도 중요함을 의미한다. 종신부제 과정을 공부하는 본인도 해마다 새로운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교구장에게 자필로 새 과정을 수락하는 의지를 밝혀야 하며, 동시에 이를 허락해 줄 것을 청원해야 한다.(Petition Letter)

LA 대교구의 ‘Diaconate Formation’ 과정을 소개하자면, 새 학년은 매년 9월 둘째 주 토요일부터 이듬해 6월 둘째 주 토요일까지이며, 매년 6월 둘째 주 토요일에 부제서품식이 있다. 이 기간 동안 통상 격주 토요일에 종일 출석하여 수업을 받는다. 물론 부활시기와 성탄시기에는 1~3주간 수업이 없다. 이 기간은 학생이 본당 또는 하느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가 봉사하라는 기간이다. 종신부제 후보자 부부는 5년간 지속되는 과정에서 신학(神學)과 전례실무 전반을 공부하게 되는데, 매 과정마다 공부해야 하는 필수서적 목록 받아 이를 구입하여 읽고 공부하여 리포트(숙제)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출석 수업시간은 자신이 배우고 익힌 내용을 서로 나누는(Sharing) 방법으로 진행된다. 원래 부제의 역할이 그렇듯이, 항상 가난한 사람, 앓고 있는 사람, 갇힌 사람, 집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 봉사해야 하며 봉사한 내역을 리포트 하여야 한다.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본당신부에게 과정 및 교과내용을 알려드리고 본당신부의 서명을 받아 학교(Formation Office)에 제출하며, 본당신부와 정기적으로 면담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전체 과정 동안 영적지도자(Spiritual Director)와 조언자(Mentor)를 각각 따로 선정하여 수시로 면담해야 한다. 부제학교를 위한 본인 부담의 학비는 없으나, 필수서적 구입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모두들 부제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존경하되, 마치 하느님 아버지의 모상인 주교를 존경하듯 해야 하며, 사제들을 하느님의 원로로 대하듯, 부제를 사도단처럼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 없이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 “사제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진리의 옹호자이며, 천사들과 함께 일어서고, 대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며, 하늘의 제단에 희생 제물이 오르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며, 인간의 면모를 새롭게 하여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저 높은 곳을 위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점을 감히 말하자면, 그들은 하느님이 될 것이고, 다른 이들을 하느님이 되게 할 것입니다.”[나지안조의 성 그레고리오]

여러분에게 성소(聖召)가 있으십니까? 배우자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본당신부님과 상담하십시오. 보다 더 자세한 것은 <http://www.la-rchdiocese.org/ministry/vocations/deacon> 나 <http://www.permanentdeacons.org>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최영신 프란치스코 + 숙 클라라 / 종신부제후보자]